



2011년도 중국 농민공 취업실태 : 2011년도 중국 농민공 조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중심으로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박사과정(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 머리말

중국경제의 개혁개방 이래 농촌 노동력은 보다 나은 삶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향을 떠나 도시지역으로 이주했고, 이들이 제공한 저렴하고 무한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중국경제는 급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 농민공의 규모는 끊임없이 증가해왔다. 지난 4월 중국 국가통계국에서 발표한 「2011년 중국 농민공 조사 모니터링 보고서(2011년 我國農民工調查監測報告)」¹⁾에 의하면, 2011년도 농민공 수는 2억 5,278만 명이고, 이 중 고향 지역을 떠나 다른 도시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외출농민공(外出農民工)'²⁾의 수는 1억 5,863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농민공이 중국 노동력 시장에서 주체로 성장하면서 중국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³⁾

이하에서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지난 4월에 발표한 「2011년 농민공 조사 모니터링 보고서」를 중심으로 중국 농민공의 규모, 특징 및 노동조건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1) 자세한 내용은 http://www.stats.gov.cn/tjfx/fxbg/t20120427_402801903.htm에서 볼 수 있음.

2) '외출농민공(外出農民工)'이라 함은 조사연도 내에 본 향진(鄉鎮)지역 이외에서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노동력을 말함.

3) 중국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11년도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사업발전 통계 공보(2011年度人力資源和社會保障事業發展統計公報)」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취업자 수는 7억 6,420만 명이고, 이 중 도시지역 취업자 수는 3억 5,914명임. 2011년 말 기준으로 농민공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 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음.

■ 농민공 수의 변화추이

‘노동력 부족현상(民工荒)’으로 기업 간의 구인경쟁이 치열했던 2011년 한 해 동안에도 농민공의 수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조사 결과를 근거로 추산한 2011년 중국 농민공의 수는 2010년보다 1,055만 명 늘어난 2억 5,278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했지만, 2011년 농민공 수의 증가폭은 2010년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출농민공은 1억 5,863만 명으로 2010년 보다 3.4% 증가했고, ‘단신 외출농민공(住戶中外出農民工)’은 1억 2,584만 명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으며, ‘가족동반 외출농민공(學家外出農民工)’은 3,279만 명으로 전년대비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도별 농민공 수 추이

(단위 : 만 명)

	2008	2009	2010	2011
전체 농민공 수	22,542	22,978	24,223	25,278
외출농민공	14,041	14,533	15,335	15,863
단신 외출농민공 수	11,182	11,567	12,264	12,584
가족동반 외출농민공 수	2,859	2,966	3,071	3,279
당해지역 농민공 ⁴⁾ 수	8,501	8,445	8,888	9,415

농민공을 출신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동부지역⁵⁾ 출신 농민공은 2010년보다 3.1% 증가한 1억 790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42.7%를 차지하고 있다. 중부지역⁶⁾ 출신 농민공은 지난

4) ‘당해지역 농민공(本地農民工)’이라 함은 조사연도 내에 당해 향진 내에서 비농활동에 6개월 이상 종사한 농촌노동력을 말함.

5) 동부지역은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 랴오닝(遼寧), 상하이(上海), 장쑤(江蘇), 저장(浙江), 푸젠(福建), 산둥(山東), 광둥(廣東), 하이난(海南) 등 11개 지역임.

6) 중부지역은 산시(山西),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안후이(安徽), 장시(江西), 허난(河南), 후베이(湖北), 후난(湖南) 등 8개 지역임.

해 보다 4.2% 증가한 7,942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31.4%를, 서부지역⁷⁾ 출신 농민공은 지난해 보다 6.7% 증가한 6,546만 명으로 전체 농민공의 25.9%를 차지하고 있다.⁸⁾ 최근 들어 중국 산업이 노동력이 저렴하고 풍부한 중·서부지역으로 대거 이전함에 따라 이 지역의 농민공이 동부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2〉 출신지역별 농민공 수 변화추이

(단위 : %)

	2010			2011		
	동부	중부	서부	동부	중부	서부
농민공	43.2	31.5	25.3	42.7	31.4	25.9
외출농민공	31.8	36.6	31.6	31.6	36.6	31.8
당해지역 농민공	62.9	22.5	14.6	61.4	22.7	15.9

■ 농민공 유동 및 취업지역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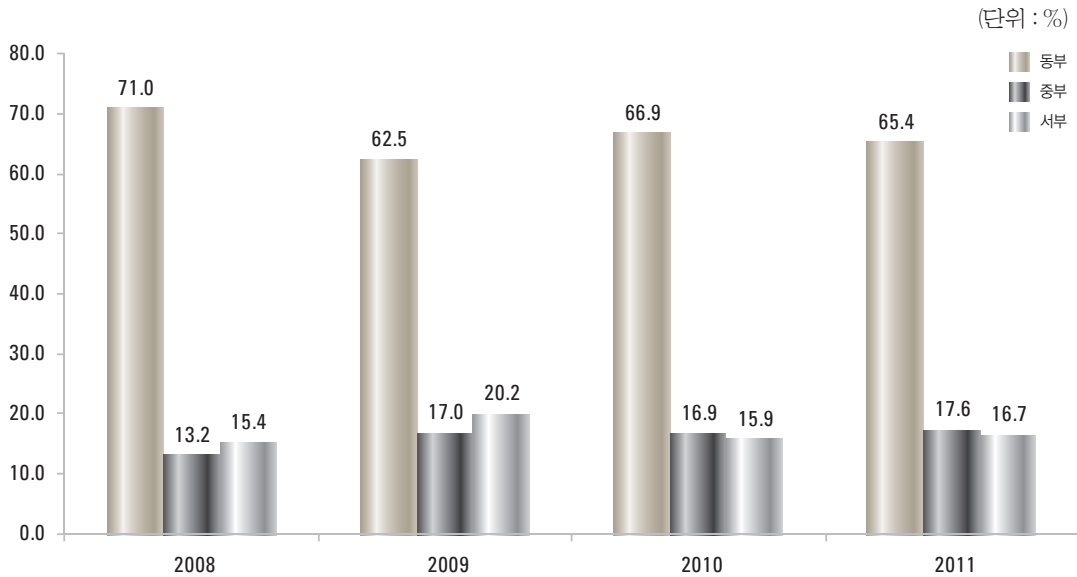
농민공의 유동 및 취업지역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중·서부지역에서 농민공 고용이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농민공이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 수는 1억 6,537만 명으로 2010년에 비해 324만 명 증가했지만, 전체 농민공 가운데 이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비중은 2010년보다 1.5% 줄어든 65.4%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의 농민공은 2010년보다 334만 명이 늘어난 4,438만 명으로 전년대비 8.1% 증가했고, 전체 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17.6%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농민공은 2010년보다 370만 명 늘어난 4,215만 명

7) 서부지역은 네이멍구(內蒙古), 광시(廣西), 충칭(重慶), 쓰촨(四川), 구이저우(貴州), 윈난(雲南), 시짱(西藏), 산시(陝西), 간쑤(甘肅), 칭하이(青海), 닝샤(寧夏), 신장(新疆) 등 12개 지역임.

8) 농민공의 취업지역은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 이외에 0.3%의 외출농민공은 홍콩, 마카오, 대만 및 국외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으로 전년대비 9.6% 증가했고, 전체 농민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대비 0.8% 상승한 16.7%로 나타났다. 성(省)별로 보면, 전체 농민공의 절반이 광둥(廣東), 저장(浙江), 장쑤(江苏), 산둥(山东) 등 4개 성(省)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취업지역별 농민공 비중 변화추이



둘째, 중국 최대의 산업단지인 장강삼각주와 주강삼각주 지역의 농민공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강삼각주 지역의 농민공은 2010년보다 18만 명 늘어난 5,828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0.3% 증가했고, 주강삼각주 지역의 농민공은 2010년보다 7.4만 명 늘어난 5,072만 명으로 지난해 대비 0.1% 증가했다. 또한, 전체 농민공 가운데 장강,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비중은 각각 23.1%, 20.1%로 지난해 대비 각각 0.9%, 0.8% 감소했다. 중·서부지역의 경제발전이 보다 빨라지면서, 중·서부 지역 농민공의 임금이 동부지역과 비슷해졌고, 장강, 주강 삼각주 지역에서 농민공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호구지인 성(省)을 떠나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외출농민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출농민공 가운데 호구지인 성(省) 내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2010년보다 772만 명 늘어난 8,390만 명으로 전년대비 10.1% 증가했으며, 전체 외출농민공 가운데 차

지하는 비중은 52.9%로 나타났다. 성(省) 외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은 2010년보다 244만 명 줄어든 7,473만 명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했으며, 전체 외출농민공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47.1%로 나타났다. 2011년 호구지인 성(省)을 떠나 외지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 농민공이 감소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성(省)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취업한 농민공의 비중보다 성(省) 내에서 취업한 농민공의 비중이 많은 구조가 변화했다.

〈표 3〉 지역별 농민공의 성(省)내·외 취업분포 변화추이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성(省)내	성(省)외	성(省)내	성(省)외	성(省)내	성(省)외	성(省)내	성(省)외
전 국	46.7	48.8	53.3	51.2	49.7	50.3	52.9	49.7
동부지역	79.7	20.3	79.6	20.4	80.3	19.7	83.4	16.6
중부지역	29.0	71.0	30.6	69.4	30.9	69.1	32.8	67.2
서부지역	37.0	63.0	40.9	59.1	43.1	56.9	43.0	57.0

넷째, 외출농민공은 여전히 지급시(地級市)⁹⁾ 이상 대·중도시로 이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출농민공 가운데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상하이(上海) 등 직할시의 비중은 10.3%,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등 성(省) 소재지의 비중은 20.5%, 지급시의 비중은 33.9%로 전체 농민공 가운데 지급시 이상 대·중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9) 지급시(地級市)라 함은 성(省)과 현(縣) 사이의 행정단위로, 지급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심지의 인구가 25만 명이 넘고, GDP가 2억 위안이 넘으며, 3차산업의 생산량이 1차산업을 능가하고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해야 함.

■ 농민공의 성별, 연령 및 교육수준

농민공의 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농민공은 남성 위주이고 청장년층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농민공 가운데 남성의 비중은 65.9%였고, 연령대는 16~20세의 비중은 6.3%, 21~30세는 32.7%, 31~40세는 22.7%, 41~50세는 24.0%, 50세 이상은 14.3%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민공 가운데 40세 이상의 농민공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8년 30.0%에서 2011년 38.3%로 증가했고, 최근 3년간 농민공의 평균연령도 34세에서 36세로 증가하였다. 해마다 대규모의 농촌 신규노동력이 농민공의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이러한 농민공의 연령구조의 변화는 농민공의 무한공급의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농민공의 학력수준은 초·중졸이 가장 많았고, 청년 농민공과 외출농민공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공 가운데 무학자는 1.5%, 초졸은 14.4%, 중졸은 61.1%, 고졸은 13.2%, 중등전문학교 졸업자는 4.5%, 전문대졸 이상은 5.3%로 나타났다. 외출농민공과 청년 농민공의 중졸 이상 학력수준은 각각 88.4%, 93.8%였다. 또한, 외출농민공의 교육수준이 당해지역 농민공의 교육수준보다 높았고, 30세 이하의 청년 농민공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학력별 농민공 수 추이

(단위 : %)

	전체 농민공	당해지역 농민공	외출농민공	30세 이하 청년농민공
무학	1.5	2.1	0.9	0.3
초졸	14.4	18.4	10.7	5.9
중졸	61.1	59.0	62.9	59.8
고졸	13.2	13.9	12.7	14.5
중등전문졸	4.5	3.2	5.8	8.6
전문대졸 이상	5.3	3.4	7.0	10.9

■ 농민공의 취업상황

농민공의 취업상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제조업, 건축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건축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농민공 가운데 제조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비중이 36.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건축업 17.7%, 서비스업 12.2%, 도소매업 10.1%,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6.6%, 숙박요식업 5.3%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간의 통계자료를 보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비중은 2008년 13.8%에서 2011년 17.7%까지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업종별 농민공 비중 변화추이

(단위 : %)

	2008	2009	2010	2011
제조업	37.2	36.1	36.7	36.0
건축업	13.8	15.2	16.1	17.7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6.4	6.8	6.9	6.6
도소매업	9.0	10.0	10.0	10.1
숙박요식업	5.5	6.0	6.0	5.3
주민 및 기타 서비스업	12.2	12.7	12.7	12.2

둘째, 중국 최대 산업단지인 동부지역의 제조업에서 일하는 농민공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역 및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 동부지역의 제조업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비중은 44.8%로 2010년보다 1.4% 감소했고, 중, 서부지역은 각각 23.0%, 15.4%로 2010년보다 각각 0.6%,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노동집약형 산업이 동부에서 중·서부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에서 농민공의 취업구조가 변화한 결과이다.

〈표 6〉 2011년 지역 및 업종별 농민공 비중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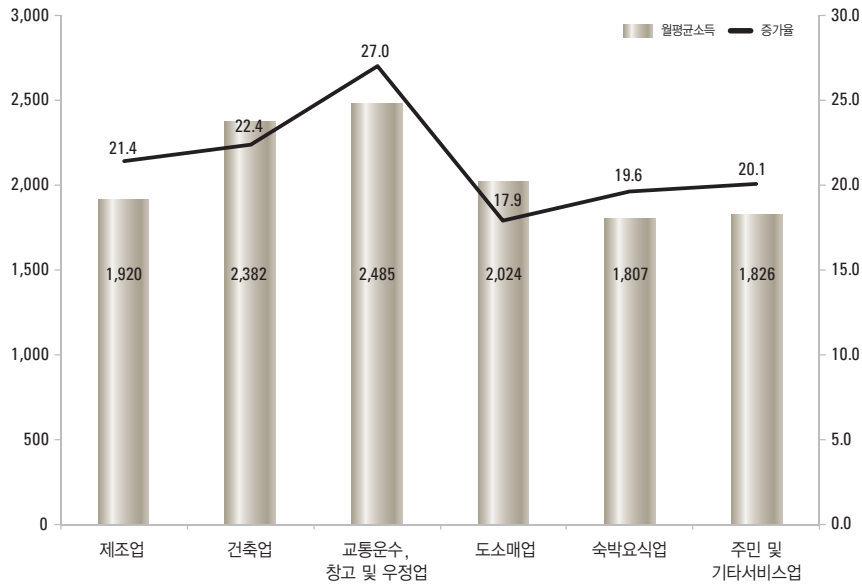
	전 국	동부지역	중부지역	서부지역
제조업	36.0	44.8	23.0	15.4
건축업	17.7	13.4	24.7	27.4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6.6	5.5	8.1	9.3
도소매업	10.1	8.7	13.1	12.5
숙박요식업	5.3	4.5	5.9	7.3
주민 및 기타 서비스업	12.2	12.3	11.4	12.2

셋째, 최근 몇 년 동안 농민공 가운데 자영업자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출농민공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94.8%, 자영업자는 5.2%, 당해지역 농민공 가운데 임금노동자는 71.9%, 자영업자는 28.1%로 2010년과 비교하면 당해지역과 외출농민공의 임노동 비중은 각각 9.4%, 4.4% 증가했고, 자영업은 각각 2.1%, 11.8% 감소했다. 한편, 자영업을 하는 농민공의 39.2%가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농민공의 연령이 많아질수록 직업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재직기간을 살펴보면, 16~20세 가운데 재직기간 5년 이상의 비중은 1.3%, 21~30세는 7.6%, 31~40세는 22.3%, 41~50세는 24.5%, 50세 이상은 21.9%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직기간도 길어졌다. 외출농민공이 취업을 위해 처음 고향지역을 떠날 때의 평균연령은 26.7세였고, 평균재직기간은 2.7년으로 재직기간 1년 미만은 22.7%, 1~2년은 43.1%, 3~5년은 20.9%, 5년 이상은 13.3%로 나타났다.

■ 농민공의 소득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농민공의 소득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외출농민공의 소득이 당해지역 농민공의 소득보다 높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소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외출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2010년보다 359위안 늘어

[그림 2] 2011년 업종별 외출농민공 월평균소득 및 증가율



난 2,049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⁰⁾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2,053위안으로 2010년 대비 21.0%, 중부지역은 2,006위안으로 2010년 대비 22.9%, 서부지역은 1,990위안으로 2010년 대비 2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몇 년간 중·서부지역 농민공의 소득이 비교적 빨리 증가하고 있고, 지역 간 소득격차도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출농민공 가운데 임노동자의 월평균임금은 2,015위안으로 2010년 보다 21.8% 증가했고, 자영업자는 2,684위안으로 지난해보다 20.6% 증가했다. 당해지역 농민공과 외출농민공의 소득을 비교해 보면, 당해지역 임노동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이 외출 임노동 농민공의 소득보다 261위안 낮았다. 다음으로 외출 농민공의 소득상황을 취업지역별로 살펴보면, 직할시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소득 증가폭이 기타 지역의 평균 증가폭보다 높았다. 직할시에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월평균소득은 2,302위안, 성(省) 정부소재지는 2,041위안, 지급시, 현급시 및 진(鎭)이 각각 2,011위안, 1,982위안 및 1,961위안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그림 2]의 외출농민공의 소득상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과 건축업이 각각 2,485위

10)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1년 중국 공유제부문의 연평균소득은 42,452위안으로 2010년 대비 14.3% 증가했고, 비공유제부문의 연평균소득은 24,556위안으로 18.3% 증가함.

안, 2,382위안으로 소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숙박요식업,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각각 1,807위안, 1,826위안 및 1,920위안으로 소득이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외출농민공의 권익보장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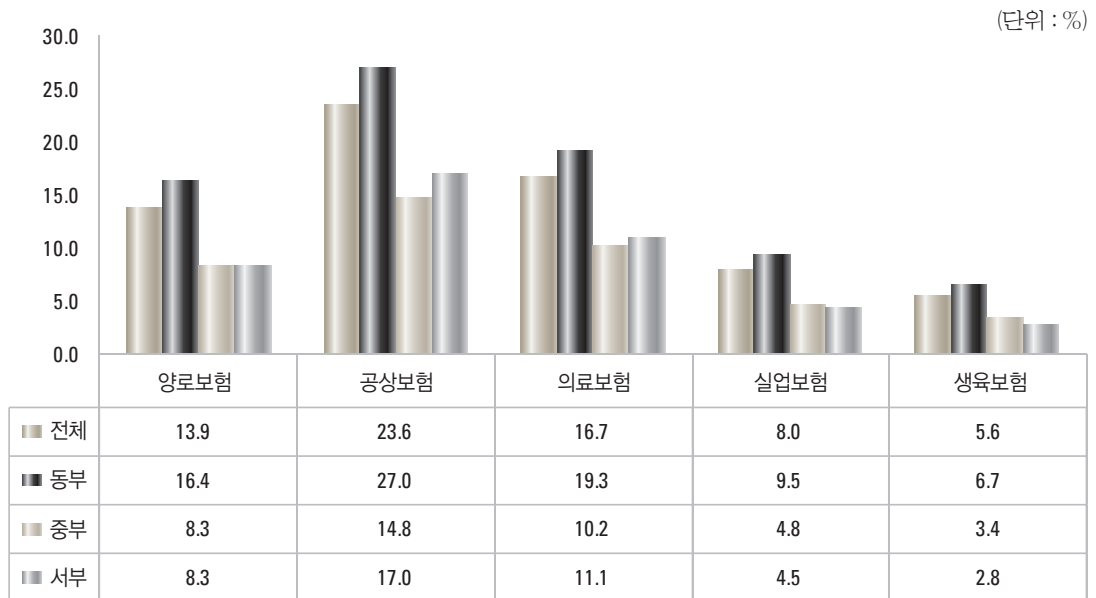
주지하다시피, 농민공의 기본적인 권리는 과거와 비교하면 많이 개선되었지만, 도시호구자에 비해 여전히 사회보험, 자녀교육, 법률구제 등 동등한 공공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임금체불이다. 보고서에 의하면, 전체 외출농민공 가운데 2011년 한 해 동안 임금체불을 겪은 농민공은 2010년보다 0.6% 감소한 0.8%였고, 건축업과 제조업에서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공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억제하려는 중국 당국의 일련의 조치들이 성과를 나타내면서 2008~2011년까지 외출농민공 가운데 임금체불을 겪은 농민공의 비중은 각각 4.1%, 1.8%, 1.4% 및 0.8%로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외출 농민공의 노동시간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법정노동시간을 상회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출농민공은 월평균 24.5일, 1일 평균 8.8시간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4%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 이상, 32.2%는 10시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한 것이지만, 주당 노동시간이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4시간 이상인 농민공의 비중이 84.5%로 대다수의 농민공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외출농민공의 노동시간

	중부지역	서부지역
전년 외출 종업시간(월)	9.8	9.8
월평균노동시간(일)	25.4	26.2
1일 평균노동시간(시간)	8.8	9.0
주 6일 노동제 비중(%)	83.5	86.4
1일 평균노동시간 8시간 초과 비중(%)	42.4	49.3
월평균노동시간 44시간 초과 비중(%)	84.5	90.7

셋째, 외출농민공의 서면노동계약 체결률은 43.8%로 2010년에 비해 1.8% 증가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축업에 종사하는 농민공의 서면노동계약 미체결률은 7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제조업의 서면노동계약 미체결률은 49.6%, 서비스업은 61.4%, 숙박요식업은 64.6%, 도소매업은 60.9%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외출농민공의 서면노동계약 체결률은 2010년에 비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축업의 서면노동계약 미체결률은 여전히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5대 사회보험 가입률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민공의 양로보험, 공상(산재)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및 생육(육아)보험 가입률은 각각 13.9%, 23.6%, 16.7%, 8% 및 5.6%로 공상보험을 제외한 양로, 의료, 실업 및 생육보험의 가입률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지역별 농민공 5대 보험 가입률



또한, 업종별로 살펴보면,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조업, 도소매업,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높고, 건축업, 숙박요식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KLI**

<표 8> 업종별 사회보험 가입률

(단위 : %)

	양로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
제조업	14.1	28.0	17.8	7.5	4.8
건축업	4.3	14.1	6.4	2.2	1.6
교통운수, 창고 및 우정업	24.4	32.6	27.7	15.1	10.4
도소매업	15.1	17.7	16.3	9.6	7.7
숙박요식업	7.3	11.8	9.0	3.8	2.5
주민 및 기타 서비스업	12.4	16.4	13.7	6.4	4.5